

수성이나 물갈이나... 161곳 치열한 접전



광주·전남 3·11 조합장 동시선거 현장을 가다

<1> 첫 동시선거 관전포인트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산림 조합장 동시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광주·전남 출마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각 조합이 관할 선관위에 위탁해 조합장을 선출해왔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동시 조합장 선거여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5곳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기관장 못지않은 대우, 역대를 상회하는 연봉, 수백억원대의 사업·예산·인사권 등 조합 전반에 대한 권한을 손에 쥐는 일명 '조합장 월드' 입성을 위한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 1인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 확정된 35곳을 제외하고 모두가 접전지역이다. 광주는 광주산림조합 노한성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전남에서는 광양농협과 장흥군수협 등 34곳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전남 지역 전체 선거구 대비 18.9%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 조합장의 프리미엄에 신선히 내세우며 신예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얼마만큼 수성과 물갈이가 이뤄질지가 우선 관전 포인트다. 현재와 전직 조합장의 리턴매치 맞대결로 치러지는 조합도 많아 주목된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하는 선거의 특성상 출마자 상당수가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

말뿐인 공명... 혼탁·불법 여전

10일까지 후보자 1인 선거운동

유일 여성후보 진원농협 촉각

합 등에서 수십년간의 근무경력을 갖는 등 조합에 뿌리를 두거나 났던 이들인만큼 누가 얼마만큼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느냐도 관심사다. 광주나 목포, 나주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나 정치인의 출마도 눈에 띄어 결과가 관심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치러지는 첫 동시선거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의 시행과 돈선거 척결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주목거리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전반에 제약을 두어 불법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나 이 와중에도 혼탁과 불법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선되더라도 선관위와 경찰 등의 불법선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후에도 시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선거운동 10일까지...조합원 47만여명 투표

이번 선거는 후보자 혼자서 그리고 어깨띠와 전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

다. 후보자 검증 토론회조차 금지돼 있으며 집회를 이용한 집단적 지지호소도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선거 운동 첫 주말부터 "현재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조합장 외에 출마자들은 자신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조차 없다"며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합장이 대다수 재출마한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선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광주 17곳에 51명, 전남 179곳 433명 출마

광주·전남 지역 후보는 총 484명으로 광주가 17곳의 선거구에 51명, 전남이 179곳에 433명이 출마해 각각 3대1과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첫 동시선거인만큼 예초 2.7대 1 이상의 경쟁률에 50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조합장이 80% 이상이 출마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여성 후보는 장성군 진원농협의 김정자 후보 단 1명뿐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김 후보는

장성농협 전무로 근무했다. 선거 관계자들은 단 한명의 여성이 출마한 것과 관련 조합장 자리는 여전히 우먼파워의 무용지대인 것 같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령대 별로 광주는 5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21명, 40대 3명, 70대 1명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50대가 221명, 60대가 177명, 40대가 21명, 70대가 14명이다.

직업은 광주와 전남 모두 농·축산업이 가장 많았으며 임업 10명, 건설업 3명, 상업과 약사·의사 각각 2명, 교육자도 1명이었다. 무직도 7명이나 됐다. 학력은 광주가 대졸이 1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남은 고졸이 137명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현재 조합장으로 이번 선거에 임중한 조합장은 광주가 15명, 전남이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거구 중 광주는 88.2%, 전남은 77.7%로 높은 수치다. 앞으로는 정치권과 같이 다선(3선) 제약이 도입될 것으로 본 후보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대거 출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될 조합원은 광주 3만 1670여명, 전남 44만 2550여명이다. 투표소는 광주 18곳, 전남 253곳이며 읍·면·동의 조합이나 관공서 등에 한 곳씩 설치한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며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자동차벨리' 조성 가속도

창조센터와 자동차산업협의회 공동 구성

광주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을 잡고 자동차산업 벨리 조성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자동차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자동차 관련 민·관·산·학·연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자동차산업벨리 조성'을 위한 업무공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광주 기아차 노조,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자동차 전장센터,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지역 내 연구·지원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 발굴부터 연구개발 협력, 기업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월 1회 이상 공식 모임을 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법안화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관별,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이탈리아의 토리노처럼 자동차 부품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지역 자동차업체의 애로사항과 함께 개선책도 논의됐다.

광주는 전국적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차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인데도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품산업의 기반이 열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270곳 중 217개사는 영세한 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업체들의 영세성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겨우 차체 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호남 화합의 장 된 대구 2·28기념식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제55주년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함께 참석해 영호남 화합을 다졌다.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2·28민주운동기념식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운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명석 5·18기념재단이사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 시위로, 당시 대구지역 국공립 8개 고교 1800여 명의 학생이 휴교령을 거부한 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시위를 벌였다.

운정현 광주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구와 광주는 형제와 같은 도시다. 오늘 만남이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잡은 손 놓지 말고 상생의 큰 그릇을 만들어 가자"며 상생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영·호남이 함께 가는 길에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믿고 배려하며 상생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한다"며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거듭 축하드리며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정신이 길이 계승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 후 영·호남 단체장들은 두류공원 내 '광주시민의 숲'을 찾아 조형 소나무를 기념 식수한 뒤 관광명소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둘러봤다.

앞서 27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 만나 호남고속철(KTX) 노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KTX 운행 계획에서 서대전과 호남의 연계가 단절됐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일본의 용기 있고 진솔한 역사 인정있어야 韓·日 동반자 관계된다”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동 4개국 순방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제70주년인 1일 “일본이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남북한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복원사업 등 이행가능한 남북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건설의 주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돼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올해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민족 화합과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나

서주기 바란다”며 “금년 중 남북한 간 의미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분야 교류와 민생차원의 협력 확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 착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

국 순방을 위해 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중순계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